

Global Finance誌 선정


국내 최초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KEB하나은행은 지난 3월 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誌가 주최한 '제1회 세계 최우수 PB은행 시상식(World's Best Private Bank Awards)'에서 국내 최초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Best Private Bank in Korea)'으로 선정되었다.

글로벌 파이낸스誌는 1987년 창간되어 북남미 지역의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매체 중 하나로, 약 188개 국가, 18만 명 이상의 금융인과 기업가들이 구독하고 있을 만큼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자산관리(PB) 시장을 반영하여 '제1회 세계 최우수 PB은행 시상'을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KEB하나은행이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Best Private Bank in Korea)'으로 선정된 것이다.

행사 관계자는 KEB하나은행 수상에 대해서 국내 PB은행 중 가장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시장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와 신상품 제공 △ 손님의 수익률로 담당 프라이빗 뱅커(Private Banker)를 평가하는 신평 가시스템 도입 △ 감성마케팅을 통해 손님과 유대감 증진 △ 세대간 자산승계 및 세무/법률/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업무 능력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업무와 자산관리(PB)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PB센터' 신설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최고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에는 세계적 금융전문지인 유로머니(Euromoney)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돼 총 9회 수상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바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더 뱅커(The Banker)誌로부터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은행(Best Bank in Asia-Pacific)' 및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Best Bank in Korea)'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대치동 골드클럽 김영호 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에 우뚝 선 대한민국 PB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국내외에서 인정해주는 당행의 자산관리역량과 외국환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행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등에도 만전을 기해 모든 지점, 모든 손님들에게 좋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KEB하나은행은 '제1회 세계 최우수 PB은행 시상식(World's Best Private Bank Awards)'에서 국내 최초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Best Private Bank in Korea)'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상은 KEB하나은행이 오랜 경험으로 쌓은 PB평가의 명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적 권위의 금융지인 글로벌 파이낸스誌가 뉴욕소재 '하버드클럽(The Harvard Club)'에서 주최한 '제1회 세계 최우수 PB은행 시상식' 직후 기념 촬영. 대치동 골드클럽 김영호 센터장, 글로벌 파이낸스誌 Joseph Giaraputo(조셉 지아라푸토) 창립자, KEB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이상용 본부장, KEB하나은행 서초중앙로지점



BMW 7Series Track Day

KEB하나은행은 화사한 봄을 맞아 손님들이 직접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BMW DRIVING CENTER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손님들은 완벽한 트랙과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이광재 기자



새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15일, KEB하나은행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BMW DRIVING CENTER로 손님들을 초청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BMW DRIVING CENTER는 전문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코스와 최고급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이 갖추어져 가족 주말나들이 명소로 입소문이 나왔다.

BMW 7Series Track Day에 초청된 20여 명의 손님들은 드라이빙에 앞서 레스토랑에서 독일 감성의 유러피언 다이닝 코스를 즐겼다. 시원하게 뺀 트랙을 내려다보며 식사를 한 후, 손님들은 전문가로부터 주행 시 꼭 알아야 하는 안전수칙을 배웠다. 안전교육을 담당한 강사는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맞게 좌석을 조정하고 운전대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대를 올바르게 잡아야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손쉽게 갈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운전 중에 핸들에 장착된 리모컨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차량의 기본 조작 방법을 익히고 드라이빙 적응도를 높인 후 경사진 숲길, 철길, 통나무 길, 암석 길, 모래길, 물웅덩이 등의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며 차량의 현가장치-엔진 파워 등을 직접 느껴보았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M 차량에 동승하여 스포츠 주행을 체험하기도 했다. 강력한 퍼포먼스의 M 성능은 평상시 교통체증으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스틸 만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은 카트를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축구장 약 33개 규모의 BMW DRIVING CENTER를 둘러보았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손님들은 "역동적이고 스틸 넘치는 레이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신선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KEB하나은행은 레저, 스포츠, 여행 등 평소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로써 손님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정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